	보 도 자 료			경 축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월 2일(금) 4매	재외동포청 개청
담당 인천문화 부서 예술회관	담당자	•기획운영팀 •담 당 자		☎ 420-2710 ☎ 420-2739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기족이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 속 미법의 순간들... 인천시, 24일 2023 가족음악회 개최

- 인천시향 6.24일 아트센터인천에서 2023 기족음악회 : 미법의 순간들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마법의 나라로 떠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 〈2023 가족음악회 : 마법의 순간들〉이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린 다고 밝혔다.

인천시향의 정한결 부지휘자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마법의 순간들〉이다. '마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클래식 곡들로 구성됐으며,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의 친절하고도 재미있는 설명이 더해져 가족들이함께 공갂하며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꾸밀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1791년 초연돼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의 서곡으로 시작한다.

뒤이어 연주되는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RV443〉으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리코더의 또 다른 매력을 들어볼 수 있는 곡이다. 2021년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리코더 그랜드 마스터로 소개된 바 있으며 공군 군악대에서 리코더로 '왕벌의 비행'을 연주하는 영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는 리코더 연주자 남형주가 협연한다.

후반부를 여는 곡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오베른〉 서곡이다. '오베른'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 속에 등장하는 요정 나라의 왕으로, 회화적인 묘사와 색채감 넘치는 극적인 표현을 통해 베버 특유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라비안나이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의 부수음악을 칼 닐센이 모음곡으로 간추린 〈알라딘 모음곡〉 중 '동양풍의 축제행진곡', '힌두인의 춤', '중국인의 춤', '이스파한의 시장', '흑인의 춤'을 연주한다. 동서양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화려하고도 다채로운 관현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정유림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음악과 미술의 결합을 통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공연 홍보물을 통해 관객들과 만남으로서 음악회의 내용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해 전달함과 동시에 공감각적 만족감을 선사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2023 가족음악회 : 마법의 순간들〉에서는 떠오르는 스타 작가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감만지 작가의 〈Super Ballerina〉를 메인 으로 감만지 작가의 여러 작품들과 함께한다.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이 표현하는 즐거운 마법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인천시립교향악단 〈2023 가족음악회 : 마법의 순간들〉은 전석 1만 원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http://incheon.go.kr/art), 아트센터 인천(www.aci.or.kr), 엔티켓(www.enticket.com) 및 인터파크 티켓 (http://ticket.interpark.com)에서 예약 가능하다. 6세 이상 관람가.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3 가족음악회 : 마법의 순간들〉

- □ 일 시 : 2023년 6월 24일(토) 오후 3시
- □ 장 소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 관람연령 : 6세 이상
- □ 공연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교향악단

[붙임1] 관련 사진







인천시립교향악단